‘태풍 변수’ F1… 비 오면 더 재미있다

내일 개막 코리아 그랑프리 ‘수중전’ 예고

서킷 미끄러워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 펼칠 듯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 개막을 이틀 앞둔 2일 영암 서킷에서 참가 팀 관계자들이 머신을 조립하고 경주장 특성에 맞도록 미세한 설정을 조절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올해로 4회째인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4일 연습 주행을 시작으로 5일 예선, 6일 결선 레이스를 치른다. /영암=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는 4일 개막하는 F1 코리아 그랑프리(6일까지)가 ‘태풍 변수’를 만나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태풍에 의해 비가 내리면 미끄러지는 차량이 속출, 순위 변동이 심해 우승자를 점치기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F1을 관람하기 위해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을 찾는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는 등 ‘F1 마케팅’에 돌입했다.

◇더욱 재미있는 수중전=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23호 태풍 ‘피토(FITOW)’가 북상해 오는 6일께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F1 결승전은 6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회 대회였던 지난 2010년에는 비가 레이스에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당시 예선 경기부터 비가 조금씩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결승전에도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됐다.

강수량이 많아지면서 출발부터 17번째 바퀴까지 세이프티카가 함께 돌았다. ‘세이프티카 상황’에서는 추월이 금지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레이스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비 때문에 사고가 속출해 예선 2위였던 마크 웨버(레드불)가 13번째 바퀴에서 미끄러져 레이스를 중도 포기했고 예선 1위 제바스티안 페텔(레드불) 역시 내내 선두를 달리다 46번째 바퀴에서 엔진 이상으로 멈춰 섰다.

비가 내리면 각 팀의 전략이 더욱 중요해진다. 실제, 지난 2010년 4월 중국 상하이 대회에서 각 팀은 비가 계속 이어지자 초반에 우천용 타이어로 교체했다. 반면, 젠슨 버튼(맥라렌)은 타이어 교체 없이 계속 달렸고 다른 드라이버들이 다시 일반 타이어로 갈아 끼우는 사이, 선두로 치고 나가 우승까지 차지했다.

◇F1 기간 전남을 알린다=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 분석 결과 지난해 F1 개최의 유무형 효과가 8조원이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F1은 입장권 수입 이외에 지역에 많은 것을 안겨준다는 뜻이다.

이에 전남도는 F1경주장에서 전남산 친환경제품 전시 판매에 나선다. 전시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단(RIS)이 개발한 성과물로 전남산 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이다. 판매 행사에는 목포대 약용자원사업단, 순천대 석류육성사업단, 해양바이오연구원의 전복산업육성사업단, 도 천연자원연구원의 황칠소재사업단 등 4곳이 참여한다.

세계 유명인과 국내외 기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영암을 찾아 전남도는 이들을 상대로 투자유치 활동도 한다.

이번 대회에는 야마구치은행 등 해외 기업 8곳과 이랜드 그룹, CJ 대한통운, 금호석유화학 등 국내 기업 20곳이 기업부스를 차리거나 대회를 관전한다. 전남도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행사를 열고, 박준영 전남지사가 직접 일부 기업체 관계자를 만나 투자 여건 등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모터스포츠 마니아로 알려진 칼 필립 스웨덴 왕자와 박지원(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전부관계자 등도 영암을 찾아 F1을 지켜볼 예정이다.

하지만 F1 운영사인 포뮬러원매니지먼트(FOM) 버니 에클레스톤 회장과 전 페라리 CEO이자 F1 주관기구인 국제자동차연맹(FIA)의 장 토드 회장 등 ‘F1 실력자’들이 대거 F1 한국대회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그는 떠났지만 ‘청춘의 고래’는 영원히

김은영의 ‘그림 생각’

(46) 최인호

‘귀신고래’(왼쪽)와 탁본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푸른 바다가 아니지/마음 속에 푸른 바다의/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청년이 아니지//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아직 사랑을 모르지…” 〈정호승 ‘고래를 위하여’중에서〉

청년문화의 아이콘, 영원한 청년작가 최인호(1945~2013)하면 내겐 소설로도 영화로도 ‘고래사냥’이 먼저 떠오른다. 흔들리는 청춘의 모습에 감정이입했던 우리 젊은 날이 그의 문학과 영화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최인호로 인해 우리 가슴 속에 ‘신화처럼 숨 쉬는 동해바다 고래’는 선사시대 사람들에게는 삶이자 기원이었다. 선사시대 사람들의 그림인 국보 제285호 ‘울주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태고의 동해바다 고래를 만날 수 있다. 이 땅의 최초의 그림이자 조각인 반구대 암각화에는 호랑이 사슴 등 육지동물과 고래를 비롯한 해양성동물, 사람, 배 등 선사시대 생활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귀신고래와 함께 돌고래, 향고래, 북방 긴수염고래, 혹등고래, 범고래 등 다양한 고래들이 등장하고 날카로운 미늘창에 찔려 괴로워하는 고래도 묘사되어 놀라움을 준다. 고래그림 중 ‘귀신고래’는 목 아랫부분에 독특한 모양의 깊은 홈이 그 종을 구분하게 한다. 몸통은 정면을, 입의 형태는 측면을 표현해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는 입체적인 시각은 지금 보아도 ‘현대적’이다.

한국의 암각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화가 김호석은 ‘그림으로 쓴 역사책 반구대 암각화’에서 “반구대 암각화는 한국미의 원형과 시원”이라 말하고 긴 세월 잘 견뎌온 암각화가 최근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한다.

암각화에서 볼 수 있었던 그 많던 고래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고래처럼 최인호는 떠났지만 우리 마음속에 ‘청춘의 고래’를 새겨준 그의 문학은 영원히 살아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전남의 문화와 유적 관리·보존에 힘 쏟겠다”

개관 50일 앞… 국립나주박물관 박중환 초대 관장

1918년 일제강점기 나주 신촌리에서는 우리나라 고고학계를 뒤흔들 만한 유물이 발굴됐다. 반남 고분군에서 국보 제295호 ‘나주 신촌리 9호분 출토 금동관’ 등이 쏟아져 나왔다. 최초 발굴된 지 95년만인 다음달 22일 영산강 고대문화를 집대성한 박물관이 개관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산하 12번째 지방박물관이다. 개관을 50여일 앞두고 2일 찾아간 국립나주박물관은 반남 고분군 건너편에 있었다.

초대 관장을 맡은 박중환(52) 관장은 “국립나주박물관은 도심이 아니라 유적과 자연 속으로 녹아드는 새로운 시도를 한 미래형 박물관”이라고 소개했다.

박 관장은 지난해 2월부터 나주박물관 개관준비 TF팀 팀장으로 개관준비를 해오다가 지난 9월12일 국립나주박물관이 공식 출범하면서 초대 관장을 맡게 됐다. 박물관 정원은 25명이다.

순천이 고향인 그는 “고향에서 일할 수 있게 돼 기쁘면서도 초대 관장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남 전체의 문화와 유적을 관리, 보존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앞으로 영산강과 나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남지역 고대문화의 형성, 발전, 소멸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고고학 중심의 박물관’으로 운영된다. 지리적으로도 반남 고분군, 복암리 고분군, 자미산성과 인접해 있어 영산강 유역의 마한 시기 옹관 고분 문화를 조명하는 유물과 유적군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지역 전통 문화와 유산을 잘 보존해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이를 토대로 지역과 문화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박 관장의 목표다. 마한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그의 과제다.

“마한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견이 있고,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분 구조와 유물 구성 등이 삼국시대까지도 지역적, 물질적으로 독특한 문화를 보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 문화에 대한 집성, 보존, 심층조사를 통해 문화를 되돌아보고 이를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국립나주박물관은 국내 박물관 최초로 ‘개방형 수장고’와 스마트폰 NFC기술(접촉감지 어플)을 이용한 전시 안내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는 “3개의 수장고에 윈도우 형식의 문을 만들어 관람객에게 선보임으로써 한정된 전시 유물 외에도 박물관 소장 유물을 한눈에 관람객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개관 특별전 ‘천년 목사골 나주’에서는 1500여점의 유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립나주박물관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위치한 것은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다. “일상에서 벗어나 느림의 미학과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연 속 박물관이 컨셉이다. ‘뮤지엄 스테이’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람객들이 머물다가 갈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겠다. 관람객들의 아이디어도 적극 수용해 지역에 꼭 필요한 문화기관으로 거듭나겠다.”

전남대와 전남대 대학원을 졸업한 박 관장은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사,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실장,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고고역사부 학예연구관,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실장 등을 거쳤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日日만평

- 김종두

우린 ‘넉다운’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6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7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선릉점(선릉역 2번 출구):02)985-183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타리 홈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스꾀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 호평역 앞):070)8829-9903 **부산** 서면점(서면로타리):051)818-8800 서면2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타리):052)2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타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이카테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 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금남로 47역 사거리):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타리):063)252-5728 군산점(구 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타리):042)222-3388 대전점 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쿤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심원로타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6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타리):064)753-438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 광주점(금남로 47역 사거리)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점(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